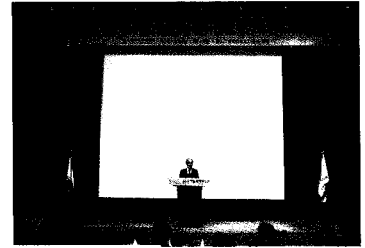


18개국 230개사 참가해 최신 포장기술 선배



제 11회 포장기계대상
정부포상식에서 인사말
을 하는 이일해 포장기
계협회장



이일해 회장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이일해)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2010서울국제포장전(Seoul Pack 2010)을 일산 KINTEX 전시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Seoul Pack 2010 전시회는 포장산업 분야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포장전문전시회로 국내 포장산업의 최신 제품 및 정보를 소개하며 해외 전문 바이어를 유치해 국내 포장산업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Seoul Pack 2010 전시회를 주최한 (사)한국포장기계협회는 이번 Seoul Pack 2010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2년여의 기획 기간을 가졌다. 새로움과 다양성을 모토로 진행된 Seoul Pack 전시회는 포장기계, 포장재료 및 용기, 포장가공기계, 포장설계 등 포장 분야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예상 넘는 업체 참가로 전시장 배로 확대

Seoul Pack 2010 전시회는 처음 기획 단계에서 KINTEX 전시장 1홀 규모인 10,000㎡에 500부스 규모로 진행되었다. 이후 포장기업들의 참가 신청이 몰리면서 신청 규모가 기획된 규모를 금세 뛰어넘게 되어 전시장 규모를 20,000㎡, 1,000부스로 배로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전시장 규모 확대는 Seoul Pack 2010 전시회에 대한 국내 포장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Seoul Pack 2010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 부스 수를 보면 타 전시회에 비해 확대 출품했다. Seoul Pack 2010 전시회에는 18개국 230개사에서 참가했다. 이들 참가업체의 전시규모는 부스규모로 약 900부스에 달해 전시장내 휴식 공간, 이벤트 공간을 더하면 20,000㎡, 1000

부스에 이른다. 첫 개막하는 전시회가 이 같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국내 전시회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Seoul Pack 2010 전시회는 포장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장종합전시회로 포장기계 업계뿐만 아니라 포장재료, 포장용기, 패키지디자인 분야 등의 기업들도 커다란 관심을 보이며 전시회에 참가했다. 특히, 화장품 분야의 포장재료, 용기업체들의 전시회 참가가 확정되어 화장품용기 공동관을 구성해 다양한 화장품 용기를 선보였다.

포장기계 분야는 Seoul Pack 2010 전시회에서 가장 눈에 띄어야 할 분야였다. 포장기계의 가장 큰 수요처는 식품산업으로 포장기계 수요의 60%가 식품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Seoul Pack 2010 전시회에서도 식품산업용 포장기계는 다양한 모델에 새로운 기술을 갖추고 선보였다. 고속 음료 충전기에서부터 고속 로터리 파우치 포장기, 다양한 모양의 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스틱포장기, 정량 제어를 할 수 있는 계량기 등의 제품이 소개되었다. 제약 포장기계 분야는 전체 포장기계 분야 중 약 20%의 이르는 분야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제약포장기계 업체가 총 출동했다. 원료 혼합 믹서기에서부터 정제기, 타정기, PTP 포장기, 분체 충전기 등 제약산업 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최신 자동화 설비를 Seoul Pack 2010 전시회를 통해 만날 수 있었다.

포장기계대상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

전시회 개막 첫날인 11월 16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제12회 포장기계인의 날 기념식 및 제11회 포장기계대상 시상식 개최했으며, 패키징 산업 혁신 클러스터 협의회(P-IICC)기술 교류 세미나도 진행되었다. 개막 다음날인 11월 17일에는 한국공업포장협회에서 진행하는 한중일 3국 공업포장기술교류회 서울대회가 열렸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산업기계 안전 선진화 자문 위원회를 개최했다. 또한 독일 Laetus사에서 'Track & Tracing 기술의 특징과 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독일 Amcor사에서 'Al-Al 포장용 Foil의 특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에이버리 데니스 코리아에서도 'Innovative Packaging Solution'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11

월 18일에는 국가물류표준화추진단에서 '수송물류국제표준 변화추세'의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교토코리아에서는 '최근 일본포장 기술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일본의 최신 기술을 선보였으며, 크로네스 코리아에서 'Krones 기술세미나 2010' 세미나를 통해 최신기술을 소개했다. 한국웨스트(주)에서도 '포장기계 산업에서의 공압 원가 분석 및 경제성', '포장기계 산업 어플리케이션 & 신제품 소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Seoul Pack 2010, 사이버전시회 동시개최

포장산업 관련 전시회가 올해부터 이원화 돼 개최되는 것과 관련, 한국포장기계협회는 사이버 전시회를 구축키로 하는 등 포장기계업체와 협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투자했다. 이는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인터넷 최강국이라는 이점을 활용하고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차별화된 전시회라는 점을 부각, 전문포장관련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이버전시회는 오프라인전시회를 인터넷을 통해 다시 선보이는 것으로 전시회 현장과 기업정보, 제품의 사진과 정보 등이 온라인상에 구현되는 서비스이다.

'Seoul Pack 2010'은 그동안 일회성 성격으로 4일에 끝났던 오프라인 전시회에 사이버전시회를 동시 개최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을 통한 연중 전시로 지속적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격년제로 열리는 'Seoul Pack 2010'의 경우 공백 기간이 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년 동안 변화된 참가업체들의 정보, 예컨대 새로 개발된 신제품이나 신기술 등을 사이버 전시회를 통해 바로 교체,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프라인 전시회의 한계를 극복했다.

한국포장기계협회 김영순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참가 업체들에게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포장관련 전문 산업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협회 활성화와 기업들의 수요창출을 위해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